



북한의 핵보유가 새로운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중동지역의 무기수출에서 세계 4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기폭장치 이미 개발

북한 이 지난 '90년 2월 이전 이미 핵기폭장치의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핵보유를 우려하고 있는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舊소련 KGB의 극비문서 공개에 따라 알려진 것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여론을 인식,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핵기폭장치는 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만드는 기술과 함께 핵무기 제조에 가장 필수적인 핵심기술이다.

따라서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평양 영변의 원자력 시설에서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경우 핵폭탄 제조는 완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핵무기 제조시 임계량(핵분열을 일으킬수 있는 최소량) 이상의 핵물질을 핵탄두에 그대로 보관할 경우 자체폭발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핵물질을 포신과 같은 원통속에 나누어 보관하고 필요할때 화약의 힘으로 이들을 밀어넣고 폭발시키게 된다.

핵기폭장치란 이와 같이 분리 보관된 핵물질을 화약을 이용해 결합시켜 폭발조건을 만들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 문서의 공개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이 일정기간 더 걸릴 것으로 예측했던 서방의 일부

예측을 뒤엎음은 물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실험과 설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생산 가능성에 대한 세계의 우려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中東지역 무기수출 세계 4위

지난 '90년 북한의 對中東 무기수출 실적은 미국, 유고슬라비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에 이른다고 스톡홀름의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최근 밝혔다.

북한의 중동 무기수출은 약 2억7천만불에 이르며, 특히 시리아는 1백기의 「스커드 C」미사일과 20여대의 발사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국과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1천km)에 두는 「노동」 유도탄을 개발중이며, 금년 상반기중 시험비행을 마치고 이를 中東지역에 수출할 계획이어서 동북아의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리비아, 이란, 시리아,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에 '93년 완공될 예정인 스킨드 미사일 생산공장의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립국 연합과 군사협력협정 체결

지난 3월3일 북한을 방문중인 독립국 연합(CIS)대표단과 북한 관리들 사이에 조사협력협정이 체결됐다.

이번 협정은 舊소련과의 조사동맹 관계를 배제한 새로운 상호 협력에 관한 협정이며, 삼소노프 CIS참모총장과 북한의 崔光 총참모장과의 회담에서는 태평양 지역의 군사정세 및 양국간 군사협력과 무기 판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앞으로 CIS로부터 현금을 주고 무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다.

연구개발투자 미국 추월

연구개발 투자에서 일본이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최근 美경쟁력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90년 한해 일본의 자본투자가 5천8백억불에 달해 미국의 5천2백억불을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더욱이 일본기업이 '90년 한해동안 투자한 연구개발 투자액은 8백억불 이상으로 7백50억불에 그친 미국 업계를 앞선 것으로 알려져, '90년대 본격화 될 美·日 무역전쟁에서 일본이 앞서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플루토늄 대량 반입

-2010년까지 85t 확보계획

日本 이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동시에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대량 반입과 국내 생산체제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 전용 플루토늄의 수요를 85t으로 추정하여

자위대 軍服 최첨단화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방탄능력이 뛰어나고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아라미드군복을 올가을부터 일부 병사들에게 공급한다.

이 전투복은 극한적인 더위와 추위에도 적응력이 뛰어나 기후에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활동할수 있으며, 자성(磁性)산화물을 입혀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수 있도록 특수처리 되어 있다.

이로써 일본 자위대의 군복은 첨단 전투장비로 바뀌게 되었으며, 다른 의복장비류도 아미노산수지, 불소수지 등으로 개조하여 성능을 높임으로써, 자위대 병사들의 전투능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30t을 반입하고 55t은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에는 1차분으로 프랑스로부터 1t의 플루토늄을 반입할 계획인데 이는 소형원폭 1백20개를 만들수있는 양이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을 평화목적에 이용할 것이라고 거듭밝히고 있으나, 일본의 기술력이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수 있다는 데 세계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플루토늄의 대량·상시(常時)보유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관한 세계의 의혹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국내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최근 플루토늄의 대량반입 계획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해 세계적으로 우려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사진은 일본이 면허생산하고 있는 F-15

